

2024년 09월 04일 36주간

제24-36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34과	은혜의 외적 수단-말씀, 성례, 기도
성경말씀	사도행전 2장 37~42절(신약 p.189)
암송구절	사도행전 2장 42절(신약 p.189)
찬 송	찬송가 546(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364(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본 문 이 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설교 이후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한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린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여러 방편을 주셨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 42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말씀/가르침입니다.

보충설명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행동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한 후에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이 바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 42절

-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성례(세례와 성찬)입니다.

보충설명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받고(행 2:38), ‘서로 떡을 떼는’(행2:42) 성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기도입니다.

보충설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행 2:42).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는 중얼중얼 주문에 더 가깝습니다.

묵상 이야기

시간이 흐르고 초대교회가 중세에 들어서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중세를 암흑기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온갖 특권과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당시 성직자는 ‘사도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사상(사도전승사상)에 따라 높은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은혜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을 강조하며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기도

- 말씀과 성례, 기도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적용

-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눔

- 은혜의 외적 수단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